

잉킨 전깃줄과의 싸움

수년 전 LA에서 살 때에 일이다. 집 앞에 잔디가 왜 그리 빨리 자라는지? 적어도 두 주에 한 번은 날을 잡아 잔디를 깎았다. 잔디를 깎은 후에는 항상 바람(Blower)을 불어서 지지분한 것들과 낙엽을 한 곳으로 모아 쓰레기통에 버리곤 했다. 그 바람을 부는 기계는 수년 전 야드(Yard) 세일에서 단돈 \$15을 주고 산 것이라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는 상태였다. 하지만 10여 년간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.

값싼 중고를 산 관계로 전깃줄을 사용해야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 늘 짜증나게 하는 일이 생겼다. 전기줄이 잉키는 문제 때문이었다. 전깃줄이 스스로 꼬이든지 아니면 이것저것에 걸려서 전기줄이 잉키는 일이 늘 생겨났다. 일하기도 힘들고, 먼지도 많이 나는데 전깃줄을 다시 펴기 위해여 모든 것을 멈추고 그 전깃줄을 푸는 일은 뜨거운 더운 날 여간 짜증나는 일이 아니었다. 그래서 늘 조심 하기는 하지만 한 번 이상은 그런 일이 생기곤 했다. 그 꼬인 줄을 펴는 일을 하는 동안 내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늘 차고 넘쳤다.

그러던 중 전깃줄이 잉키는 문제는 전깃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. 낫시를 가서 줄이 잉킬 때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 기억났다. 문제는 나의 급한 성격이었다. 생명도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전깃줄과 낫시줄이 문제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. 내가 준비를 잘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급한 성격으로 무식하게 끌어당겼기 때문이었다. 하지만 줄이 잉켰다고 해도 좋은 마음으로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임을 인정하고 천천히 그 잉킨 줄을 풀어내려고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잉킨 것을 풀어내는 시간은 한 숨 쉬었다가 다시 일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. 하지만 나는 늘 스스로의 급한 성격에 노예가 되어 혼자 스스로에게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다.

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. **“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”** (누가복음 8장 15절)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씨앗과 같이 뿌려졌을 때에 좋은 밭이 되어야한다는 말씀에 일부분이지만 나의 마음이 늘 좋은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만 좋은 땅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도 된다.

나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마음도 없고, 인내도 없으며, 전깃줄과 다투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내 자신이 부끄럽기만 하다. 이러한 모습이 변화되어 잉킨 줄도 기쁨으로 풀어나가는 성품으로 변화될 때에 좋은 땅으로 인내를 이루며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 믿게 되었다.

전깃줄과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온유한 마음을 예수님께 배울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.